

# 우리나라 제4기 갱신세의 동물상과 구석기시대 옛사람들\*

조 태 섭

## 1. 머리말

문자와 기록이 없었던 선사시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인 구석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요사이 새로이 밝혀지고 있는 자료가운데 눈에 띄는 지역이 전라 내륙지방과 강원도 해안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구석기시대의 유적의 발견과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옛사람들의 활동이 전국적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구석기시대유적들의 대부분이 한대유적(Open Sites)이고 오히려 옛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았을 동굴유적(Cave Sites)은 매우 적은 수이다. 현재까지 밝혀지고 정식으로 조사된 동굴유적의 수는 남한은 5 곳이고 북한이 조금 많아 10여곳에 이른다. 이것은 100여 곳에 달하는 한대유적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한편 이 점은 우리나라의 제4기 동물화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한대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대부분은 석기이고 동물뼈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들판이나 산, 구릉의 토양은 주로 산성토양으로 이루어져 여기에서는 뼈를 포함한 유기물들이 다 삭아 없어지고 보존이 안되는 것이다.

제4기 가운데 구석기 시대를 포함하는 갱신세의 인류의 활동을 증거해주는 것이 석기라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연환경 조건 아래에서 생활하였는가는 꽃사루나 나무화석으로 분석되는 식물상이나 출토된 짐승의 뼈로 연구하는 동물상의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4기 갱신세에 출토되는 동물상의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앞으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이다.

---

\* 이 연구는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2-AM10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2. 우리나라 갱신세의 동물화석

### 2.1. 갱신세의 동물화석 연구

남한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유적의 발굴(공주 석장리 : 한테유적)이 1964년에 이루어진 이래 동굴유적의 발굴은 10년 뒤에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뒷산 중턱에서 찾아진 점말 용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찾아진 동굴유적으로 이곳의 발굴은 1973년에 시작되어 연차발굴이 80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미 축적된 발굴의 기술과 정리된 방법으로 정밀히 이루어진 이 발굴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수많은 구석기시대의 동물화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연세대 발굴).

1976년에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서 보고되어 조사한 유적이 두루봉 동굴이다. 중요한 가지굴만 6개에 이르는 동굴군인 이 두루봉 유적에서는 동물화석뿐만 아니라, 석기·뼈연모·예술품·집자리 그리고 사람의 뼈(1983년)까지 찾아져 다양한 구석기시대의 문화 유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준 바 있다(충북대 발굴).

1981년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의 마을 곁에 있는 바위그늘에서 찾아진 상시 바위그늘유적은 특히 처음으로 사람뼈가 나온 곳이다. 상시슬기사람으로 명명된 이 뼈를 통해 우리의 뿌리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연세대 발굴).

1983년 단양군 매포읍 도담리의 남한강가에서 찾아진 커다란 동굴인 도담 금굴은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의 상한을 약 70만년 전으로 올려준 중요한 유적이다. 매우 큰 규모와 선사시대 전시기에 걸친 유물의 출토를 자랑하고 있는 이 동굴에서는 석기, 동물뼈, 예술품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연세대 발굴).

1986년 중학교 학생들에 의해 제보되어 조사가 시작된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뒷산의 구남굴은 지금까지 3차례의 발굴만 이루어져 아직 이 유적의 정확한 시기와 문화양상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다. 층위양상과 유물 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이 유적은 많은 수의 동물화석, 사람뼈 등이 출토되고 있다(충북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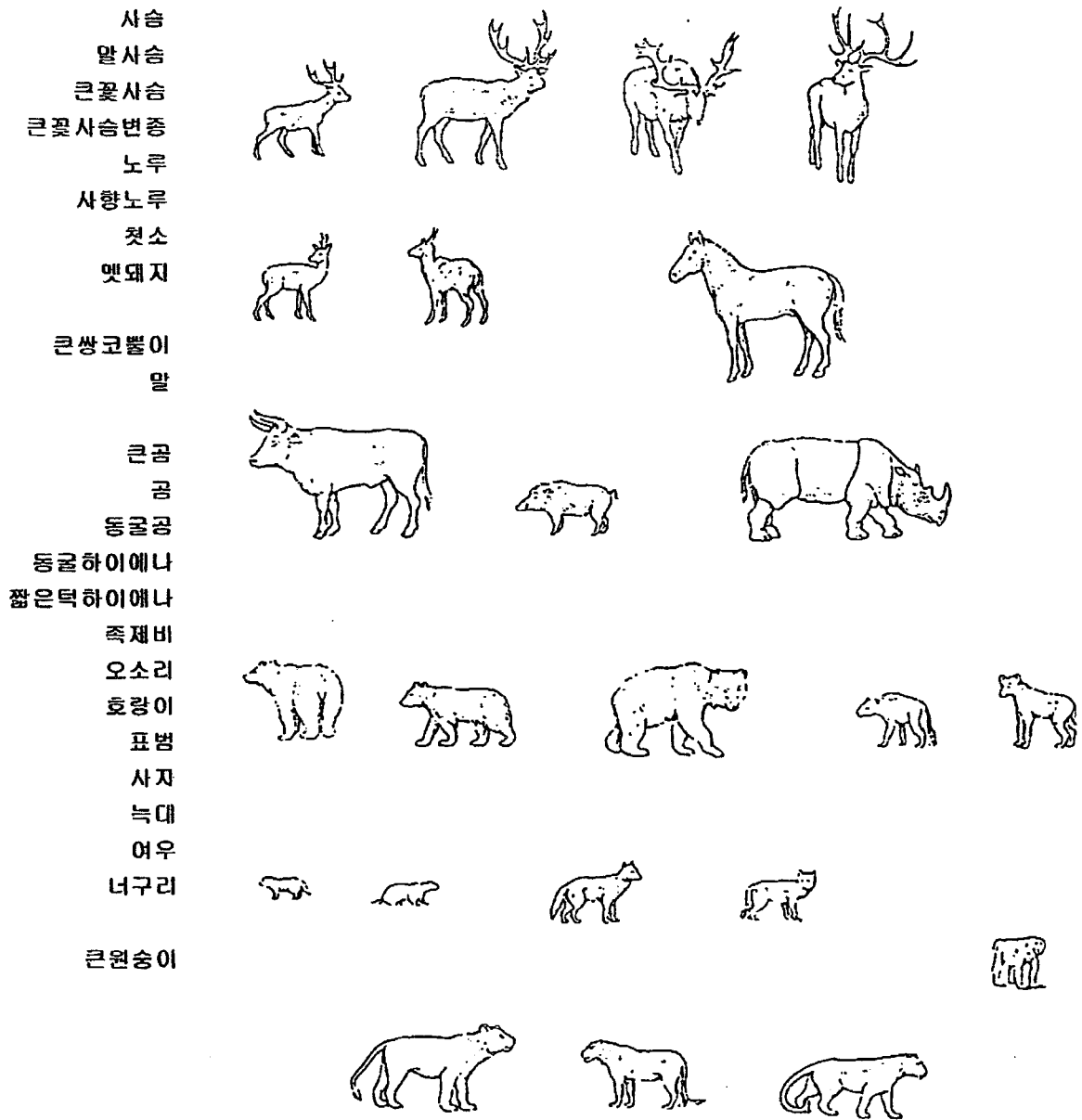
### 2.2. 중기 갱신세의 동물상

위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에 출토된 짐승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중기 갱신세 (125,000년이전) 으로 가늠되는 곳은 청원 두루봉 유적, 점말 용굴 제 3층, 단양 도담금굴의 1,2 문화층이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짐승들을 특히 대형 포유류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본 것이 다음의 표이다(표 1).

특히 토끼보다 큰 젓먹이 짐승이 중요한 까닭은 이들이 옛사람들의 사냥활동의 대상이 되었던 짐승들이기 때문이다.

〈 표 1 〉 우리나라 중기 갯신세 동굴 유적의 동물상

유적	두루봉 동굴	점말 용굴	도담 금굴
전체 동물상	28과 46종	22과 46종	20과 38종
큰젓먹이짐승	20종	22종	25종
소목	사슴, 말사슴, 큰꽃사슴, 큰꽃사슴변종, 노루, 첫소, 멧돼지	사슴, 노루, 사향노루, 첫소	큰꽃사슴변종, 첫소,
말목	큰쌍코뿔이	말	쌍코뿔이
식육목	불곰, 곰, 동굴곰, 동굴하이에나, 하이에나, 족제비, 오소리, 호랑이, 표범, 늑대, 너구리	오소리, 하이에나, 족제비, 고양이, 여우, 범 너구리	사자, 짧은턱 하이에나
영장목	큰원숭이,		



〈그림 1〉 중기 갱신세(+125,000년)시기의 큰 젓먹이 짐승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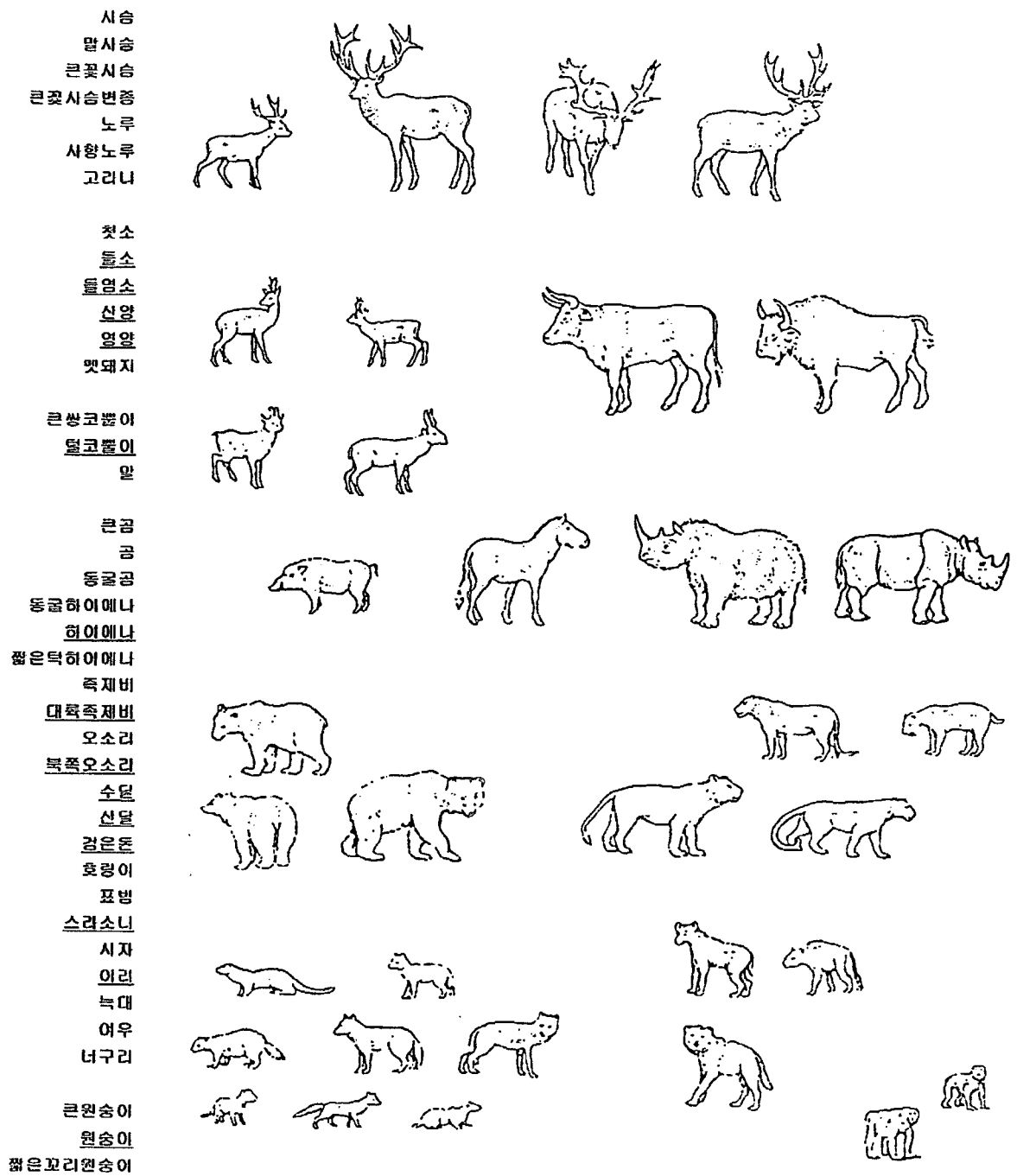
2.3. 후기 갱신세의 동물상

후기 갱신세에 속하는 유적들로는 접말 용굴 4·5·6 층, 상시 1 바위그늘, 단양 도담 금굴 3·4 문화층 그리고 단양 구남굴 유적 등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짐승들을 정리한 것은 다음

과 같다(표 2).

〈 표 2 〉 우리나라 후기 갱신세 동굴 유적의 동물상

유적	점말 용굴	상시 1 바위그늘	도담 금굴	단양 구남굴
전체 동물상	22과 46종	21과 35종	20과 38종	17과 25종
큰젓먹이집승	22종	20종	25종	11종
소목	사슴, 노루, 사향노루, 첫소	사슴, 말사슴, 큰꽃사슴, 노루, 사향노루, 고라니, 들염소, 멧돼지	사슴, 말사슴, 큰꽃사슴변종, 노루, 사향노루, 고라니, 첫소, 산양, 영양, 멧돼지	사슴, 말사슴, 사향노루 산양
말목	털코뿔이 말	말	쌍코뿔이 말	코뿔이
식육목	불곰, 곰, 동굴곰, 오소리, 하이에나, 대륙족제비, 수달, 검은돈, 산달, 호랑이, 표범, 사자, 여우, 너구리	오소리, 북쪽오소리, 족제비, 수달, 검은돈, 산달, 호랑이, 표범, 여우, 너구리, 개	큰곰, 동굴곰, 오소리, 하이에나, 족제비, 호랑이, 사자, 이리, 스라소니, 여우, 너구리, 늑대	곰, 오소리, 산달, 담비 호랑이, 스라소니
영장목	큰원숭이, 원숭이	사람	짧은꼬리원숭이	짧은꼬리원숭이



〈그림 2〉 후기 갱신세(-125,000년)시기의 큰 젓먹이 짐승들

2.4. 우리나라 갱신세 시기의 동물상의 성격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한 갱신세 시기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짐승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중기 갱신세 시기에 25종의 큰 젓먹이 짐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후기 갱신세 시기에 와서는 모두 40종의 짐승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종적 구성의 증가는 주로 식육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나운 식육류의 증가는 초식짐승을 비롯한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던 짐승들의 확대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점은 후기 갱신세 시기에 우리나라에 다양하고 많은 짐승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식육류의 경우 점말 용굴에서 14종, 도담 금굴에서 12종 등이 나와 매우 다양한 종이 서식했음을 알려준다. 이 가운데에는 호랑이, 사자, 곰과 같은 대형의 맹수가 모두 보이고 중형의 표범, 시라소니, 늑대들 그리고 여러 작은 식육류들이 함께 어우러져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금굴과 같은 강가의 유적에서는 다양한 식육류가 나오는 반면에 깊은 산에 자리잡은 구녕굴에서는 오히려 식육류의 종적 구성이 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숲과 산지형 조건의 생태환경아래 서식했던 이들의 성격을 보면 구녕굴과 용굴에서 많은 식육류의 존재가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적은 편이다.

둘째로 소목의 경우 사슴과 짐승들의 분포를 보면 중기 갱신세 시기에는 지금은 멸종되어 버린 큰꽃사슴, 말사슴 등이 나타나고 후기 갱신세로 오면 현재와 비슷한 짐승들로 구성된다. 이 소목에 해당하는 짐승들은 대체로 산악지형에 서식하였던 짐승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용굴에서 찾아지는 첫소의 존재, 그리고 강가인 금굴에서 오히려 제일 많은 종류의 소목 짐승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말목(기제류)의 경우,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동물상의 구성을 볼 때 말목짐승이 번성하였던 시기는 중기 갱신세 시기로 가늠된다(조태섭, 2001). 이후 점점 양과 종류 면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제2층에서 출토된 5마리의 코뿔이를 빼고는 다른 유적들에서는 한 두 종류의 뼈들로 이 짐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앞선시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짐승들이 후기 갱신세시기에 나오는데 이들은 털코뿔이, 대륙족제비, 산양, 북쪽오소리 등으로 전체로 볼 때 추운환경에서 적응하는 짐승들이다. 이것은 후기 갱신세 시기가 앞선 중기 때 보다 기후가 추워지고 있음을 반증하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전체 짐승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의 자연환경은 그다지 혹독한 추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의 유적은 각각 다른 시기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는 각 짐승들의 연속성, 계승성을 볼 수 있고 급격한 짐승상의 변화는 없던 것으로 가늠되기 때문이다.

### 3. 구석기시대의 옛사람들과 사냥활동

#### 3.1.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짐승을 사냥하였을까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마다 출토되는 동물화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종의 분류는 한 점의 이빨만 가지고도 한 마리의 동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쓰여지는 단위가 최소뼈대수(NISP)와 최소마리수(MNI) 산출이다.

즉 각 짐승마다 뼈가 몇 개가 나왔나 그리고 이 뼈들은 몇 마리 분이나 되었나를 밝혀내어 당시 그 유적에서 어떤 짐승들이 많이 나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굴에서 생활하던 옛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많이 잡아먹고 생활을 하였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이 방법에 따라 찾아진 동물화석의 최소뼈대수와 최소마리수의 값이 비교 가능한 동굴의 경우를 정리하여 본 것이 다음의 표이다.

정확한 출토 동물화석의 수와 마리수를 알 수 없는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 또한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층 별 구분을 하여본 결과 후기 갱신세에 속하는 6개의 유적의 층별로 집중된 짐승의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슴의 뼈이다.

먼저 최소뼈대수를 보면 사슴의 뼈가 각 유적마다 최소한 절반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구남굴에서는 전체 출토 짐승뼈의 90%이상이 사슴의 것이며 점말 용굴의 경우는 전체의 양은 정확하지 않지만 8,000점 이상의 사슴의 뼈가 나오고 있다.

〈 표 3 〉 우리나라 구석기 동굴유적의 출토 사슴뼈의 비교(후기갱신세)

유적	전체 짐승 종수	NISP(최소뼈수)			MNI(최소마리수)			참고
		전체	사슴	%사슴	전체	사슴	%사슴	
금굴								
IV층	10	?	?	?	14	4	28.6	26,600bp
상시1그늘								
5층	7종	66	49	74.2	11	4	36.4	30,000bp
3층	7종	83	58	69.9	14	7	50.0	< 30,000bp
구남굴								
3층(1차)	7종	207	179	86.5	63	46	73.1	>12,500bp
3층(3차)	10종	3647	3535	96.9	72	60	83.3	>12,500bp
점말용굴								V 층 ; 66,000bp
IV-VI층	18	사슴절대 우세			사슴 우세			VI 층 ; 13,700bp

이보다 비율이 줄어들지만 최소마리수의 구성에서도 사슴의 우세는 확연하다. 단 금굴 IV층의 경우는 30%미만이지만 이 층에서 나오는 사슴과 비슷한 산양, 고라니, 사향노루 등을 포함하면 전체 짐승의 60%를 넘고 있다. 특히 점말 용굴에서는 175마리 분의 사슴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주된 경제활동인 사냥의 대상이 사슴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더욱이 사슴과 짐승들의 생태학적인 특성은 이 점을 뒷받침하여준다. 즉 사슴은 잡을 때 다른 맹수들과는 달리 위험하게 목숨을 잃을 염려도 없고, 매우 빠른 편도 못되었을 것이며, 잡은 다음의 소비활동에 아주 유용한 것이기에(떡이, 가죽, 뼈) 이 짐승에 대한 옛사람들의 선호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위의 4개의 유적의 6개의 층의 연대는 대략 30,000년전을 전후한 후기 갱신세의 후반부 즉 후기 구석기시대로 가늠된다. 이 시기의 구석기시대 옛사람들은 사슴을 주로 사냥한 것으로 이 점은 유럽의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추운 기후에 적응하며 살았던 순록을 집중적으로 사냥하며 살았던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 3.2.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잡은 짐승을 어떻게 먹었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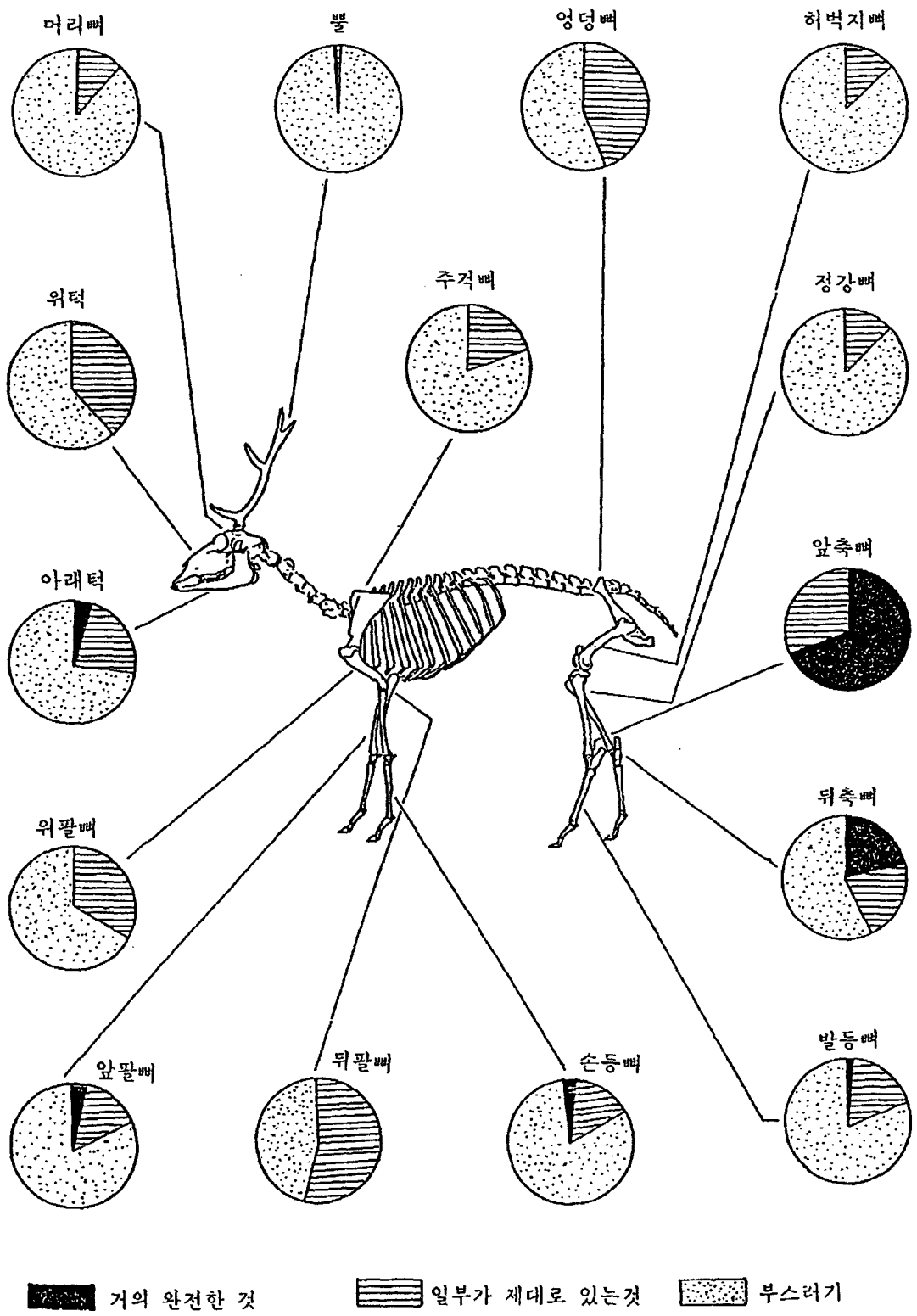
구석기시대의 옛사람들이 사냥해서 잡은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것도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것은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 짐승들의 뼈대 부위별 출토 양상과 뼈에 나타나있는 사람의 행위의 흔적인 자른자국(Cut Marks)을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 짐승들의 남아있는 뼈대의 부위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식육류 짐승들의 다양한 출현은 대부분 이빨이나 아래턱의 존재로 확인될 뿐 다른 부위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짐승들이 소비되지 않았을 경우나 심지어는 사냥대상이 안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다(이빨을 주워왔을 경우).

하지만 각 유적에서 출토된 사슴의 뼈를 부위별로 살펴본 결과 약간의 빈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짐승의 등뼈, 엉덩뼈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뼈들이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하였을 동굴에서 사슴의 모든 부위의 뼈가 다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짐승을 사냥한 곳에서 조각으로 나누어 옮긴 것이 아니라 통째로 유적으로 가져왔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옮겨온 사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위별로 잘리우고, 살을 발리우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뼈를 깨어 골수도 먹고, 연모도 만들었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 이 부위별 뼈들의 남아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그림3 에서 보듯이 점말 용굴에서 나온 8,000여점의 사슴뼈 가운데 온전하게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발뒤쪽에 있는 앞축뼈와 뒤축뼈의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뼈들은 다 깨어지고 쪼개진 것들이다. 특히 구낭굴의 경우 부위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그맣게 깨어진 뼈의 수가 무려 20,000점이 넘게 나타났다.



< 그림 3 > 점말응굴 사슴뼈의 부위별 출토 양상

한편 이러한 뼈대의 부위별 해체의 과정을 증명해주는 것이 뼈를 날카로운 도구를 써서 잘라낼 때 혹은 살을 벗길 때 나타나는 자른자국이다. 청원 두루봉 동굴, 점말 용굴, 구녕굴의 사슴뼈에 나타나 있는 이 자국들이 당시 사람들의 사슴 해체모습을 증명해준다.

게다가 이 작업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른 양상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굵고 짧게 나타난 자국은 힘살이나 큰 뼈대를 가를 때 썼던 방법들이고, 나타난 자국들이 얇고 길며 여러 줄이 난 것은 살을 벗겨낼 때 또는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한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옛사람들의 사슴을 사냥하고 그 짐승을 도살하고 소비하는 것이 매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분석들이 앞으로도 자세히 이루어지면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더욱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멧음말

우리나라의 제4기 갱신세 동안에 살았던 짐승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수를 이루며 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큰 것에서부터 작은 짐승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제외하였지만 쥐와 식충류의 짐승들도 매우 다양하게 찾아지고 있다.

이들을 바탕으로 사냥을 하며 살았던 구석기시대 옛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짐승들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자료도 적고 분석할 방법도 많아 제대로 이 옛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후기구석기시대의 자료는 더러 있는데 비하여 특히 이른 시기의 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들이 찾아질 날을 기대해 보며 또한 이미 발굴된 유적들의 동물상에 대한 분석도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구석기시대 옛사람들과 짐승들의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 손보기. 1985. 「제천 점말용굴 발굴 중간보고」 『한국사연구』 11. 9-54.
- 손보기. 1980. 「제천 점말 용굴 발굴」 (연세대 박물관)
- 손보기. 1984. 「상시 1 그늘 옛살림터」 (연세대 선사연구실)
- 손보기. 1985. 「단양 도담리 금굴유적 발굴조사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연장발굴조사보고』 15-99.(충북대 박물관)
-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 용굴 유적」 『박물관기요』 5. 149-172. (단국대 박물관)
- 이용조·박선주·우종윤. 1991. 「단양 구낭굴 발굴보고(I)」 (충북대 박물관)
- 이용조·조태섭·김주용·강상준. 1999. 「단양 구낭굴 유적-1998년도조사」 (충북대 박물관)
- 이용조·조태섭. 2002. 「단양 구낭굴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먹을거리 분석」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생업경제』 - 제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13.(호서고고학회)
- 조태섭. 2000. 「동물화석을 통해본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동굴 유적의 성격」 『국사관론총』 91. 1-62. (국사편찬위원회)
- 조태섭. 2002. 「구석기시대의 동물화석 연구 : 현황과 전망」 『한국구석기학보』 5. 99-120. (한국구석기학회)
- 조태섭. 2002. 「구석기시대 옛사람들의 짐승도살 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구석기학보』 6. 파른손보기박사 팔순 기념 특집호 77-102. (한국구석기학회)
- 최삼용. 1984. 「점말 용굴 사슴과 화석의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Cho Taesop. 1998. Etude Archeozoologique de la Faune du Perigordien Superieur de l'Abri Pataud. These de Doctorat de M.N.H.N. (Paris, France)
- Leroi-Gourhan Andre. 1992. Les Chasseurs de la Prehistoire (Metaille, France)